

로저 그린 박사, 종교개혁에서 현재까지, 강의 19, 칼 바르트에 초점을 맞춘 19 세기와 20 세기 개신교

© 2024 Roger Gree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저 그린 박사가 교회사, 종교 개혁에서 현재까지의 수업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션 19, 19세기와 20세기 개신교의 로마 가톨릭교, 칼 바르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좋아요, 음, 이것은 강의 번호 9, 19세기 로마 가톨릭교의 신학입니다.

우리는 소개를 했고, 어떻게, 더 광범위한 문화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광범위한 문화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것이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설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다음 일은, 일종의 상기시키기였지만, 우리는 19세기 교황청으로 넘어갔고, 우리는 두 명의 교황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교황 비오 9세는 우리 왼쪽에 있고 교황 레오 13세는 우리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교황에 대해 언급한 것은, 기억하세요, 교황 비오 9세는 세상의 창문에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더 넓은 문화, 더 넓은 세상에서 정말로 고립시켰습니다. 그는 그 세상과 그 세상이 기독교 세계에 가하는 공격을 매우 의심했기 때문에 그 세상과 별개로 진정한 가톨릭 신앙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그것은 비오 9세의 일이었고, 그는 그것으로 꽤 성공했습니다.

그 운동이 울트라몬타니즘이라고 불리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언급한 바 있죠. 파워포인트에 넣었지만, 레오 13세는 같은 창문 앞에 서서 커튼을 열고 교회가 세상과 세상의 문제에 직면하게 하고 세상에 의미

있게 행동하게 한 교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으로서 두 명 더, 더 다른 사람을 가질 수는 없었을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더 넓은 문화와 더 넓은 세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생각에서 상당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세 명을 언급했고, 우리는 세 명의 주요 로마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레오 13세에 대해 아직 끝내지 않았으므로, 맞습니다.

레오 13세에 대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그의 업적과 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우리가 레룸 노바룸을 언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나요? 주석에 레룸 노바룸이 있나요? 이것이 그의 위대한 회칙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교황 재임 기간인 9세기 레오 13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회칙, 새로운 것들 또는 새로운 사물의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언급했지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Rerum Novarum은 교회에서 19세기 가장 중요한 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문화적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보여주는 회칙에 대한 세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그는 서 있었고, 회칙은 노동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노동자들은 단지 보상만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계급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노동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서부의 산업 도시에서의 노동 조건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언급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게 1위입니다.

그럼, 좋아요. 두 번째, Rerum Novarum은 사회적 입법을 지지합니다. 근무 시간, 근무 조건 등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사회적 입법.

Rerum Novarum, 이 위대한 회칙은 사회적 입법을 지지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사람들의 삶의 조건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회는 커튼을 닫고 사람들이 매우 끔찍한 환경에서 낮은 임금으로 장시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커튼을 열고 그 상황에 직면하여 노동계급과 일용 노동자의 편에 설 것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는 사회적 법률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은 매우 논란이 많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논란이 많았고, 그것은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지지, 노동자들을 노동조합화하여 숫자로 힘을 얻는 것에 대한 지지 등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19세기 후반이나 20세기 초반에 노동조합이 있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싸움을 벌였습니다. 사람들은 유럽의 뉴욕, 보스턴 등의 거리에서 스스로를 노동조합화하려고 노력하며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노동조합주의의 의미에서의 승인입니다. 그래서, Rerum Novarum의 기본적인 것은 Rerum Novarum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Rerum Novarum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노동계급의 편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것은 교회에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상류 계층의 편에 서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부유하고 특권층의 삶에 일종의 세례를 주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것이 프랑스 혁명이 부분적으로 그런 이유로 일어났던 이유인데, 혁명 당시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를 생각할 때, 가톨릭 교회가 부유층의 자리에 서 있고, 부유층에 의해 서 있고, 일반 대중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교회는 우리가 노동자들 옆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정말, 정말 중요했고, 정말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인 Rerum Novarum에 대해서요. 우선, 두 교황에 대한 질문이 있나요? 레오 13세인가, 비오 9세인가? 우리가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건 알아요.

좋아요, 이제 이 시기에 있었던 세 가지 주요 로마 가톨릭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그 중 하나는 이 시대에서 약간 벗어나 있지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자연스러운 곳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정의한 세 가지 주요 가톨릭 교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좋아요, 첫 번째는 1854년 비오 9세가 선포한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 교리입니다. 좋아요, 이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신교도로서, 아마도 여기 개신교도들에게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지만, 이것을 동정녀 탄생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동정녀 탄생의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가지 별개의 교리이며, 종종 동정녀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원죄 없는 잉태라고 부르는 것을 듣습니다.

이것은 동정녀 탄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교리는 뭐죠? 제가 읽어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황의 편지, 교황칙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잉태된 첫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특권으로,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원죄의 모든 얼룩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좋아요, 그럼 무염잉태 교리는 뭐죠? 무염잉태 교리는 잉태되는 순간에 있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는 마리아를 잉태할 때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는 성관계를 가졌고, 잉태되는 순간에 마리아는 원죄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녀는 본래의 죄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녀는 평생 죄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무염잉태 교리의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다시 말해서, 비오 9세의 관심사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을 마리아와 같은 인물에게 집중시킨다면,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었고, 평생 동정녀로 남았으며, 평생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고, 마리아와 같은 인물에게 그 충성을 집중시킨다면, 그것은 신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오 9세가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세상의 커튼을 닫고, 신자들을 가톨릭 교회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 등등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이유로 그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19세기에 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본성을 확증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전해진 원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을 때 처녀였기 때문에 원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자신은 원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물려줄 원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완전한 신으로 보존하고, 19세기에 그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를 단지 인간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맞서 그의 완전한 신성을 보존합니다.

따라서 이 교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 교회 자체와 예수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논쟁에 참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에 나왔습니다. 교리 자체에

대해 언급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마리아가 원죄를 물려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무죄가 부여되었고, 그녀에게 정의가 부여되었고, 그녀에게 신성함이 동시에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무죄하고, 의롭게 살고 있으며, 동시에 성화되었는데, 이는 그녀가 삶에서 영원히 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교회는 무염잉태 교리에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교회는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슬픔, 질병,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보호해주었을까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영원히 신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영원히 성화된 삶이지만, 그녀는 질병, 슬픔, 죽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인간이며, 그녀는 많은 고통을 겪었고, 심지어 죽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그 교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원죄 없는 잉태 교리는요? 어디에 있을까요? 글썄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교도들은 원죄 없는 잉태 교리가 선포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이 로마 가톨릭교도와 개신교도를 갈라놓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도들은 성경에서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고 말하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교도의 대답은 교리가 성경과 전통에서 형성된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에는 마리아를 새로운 이브로 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브와 함께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그녀의 원죄 없는 잉태와 죄 없는 삶을 통해, 죄 없는 주님을 낳음으로써, 세상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 마리아를 새로운 이브로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교회에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브, 타락 이전의 이브.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대표하는 마리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들이 이 혼합과 토론에 참여했고, 당신이 추측했듯이

, 하지만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들은 그녀가 원죄로부터 보존되었다는 것을 정말로 의심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죄 없는 삶을 살았다고 느꼈지만, 그녀가 원죄로부터 보존되었는지 정말로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의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죄로부터 보존되었나요? 이제 19세기에 이르러서는 교리에 따르면 그녀는 원죄로부터 보존되었고 또한 죄가 없었습니다. 중세 교회에 이르러서는 중세 교회가 마리아의 잉태에 대한 축제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3세기, 14세기, 15세기에 그들은 마리아 잉태 축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1854년에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 교리는 교회에 매우 매우 중요한 교리였고, 예수의 본성에 대한 모든 그리스도론적 논쟁과 성경적 비판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보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 원죄 없는 잉태 교리에 대한 질문은? 우리는 그것이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혼동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아요. 이제 다음 교리를 보면, 마리아 승천 교리, 이 날짜는 강의 계획서에 정확하고 여기 파워포인트에도 정확합니다. 이 날짜는 1950년입니다.

그럼 왜 내가 당신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왜 내가 당신을 19세기에서 20세기로 건너뛰게 하는 거지? 글썄, 어느 순간, 이 교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여기서 하기로 했어. 로마 가톨릭 교회와 마리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 여기가 자연스러운 장소인 듯해. 하지만 이건 1950년대 교리야.

1850년 교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니 빨리 넘어가서 마리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 여기서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마리아의 승천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교리가 선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느님에 의해 잉태되어 영원히 동정이었던 마리아는 지상 생활의 여정이 끝났을 때, 육신과 영혼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올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승천 교리는 마리아가 죽었을 때, 그녀의 몸과 영혼이 그녀의 죽음의 순간, 그 지점에서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론 마리아에게는 연옥이 없습니다. 그녀는 바로 신의 면전으로 데려가졌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모 영면 교회가 있습니다. 성모 영면 교회는 흥미로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모 영면 교회는 마리아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믿어지는 장소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모 영면의 교회에 가면 그 장소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마리아가 하늘로 올라간 곳이죠. 아주 흥미로운 교회입니다.

테드는 우리에게 그 안식의 교회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매혹적인 교회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승천에 대한 교회입니다.

좋아요. 이제, 이것이 원죄 없는 잉태의 첫 번째 교리입니다. 두 번째 교리는 승천입니다.

이제 세 번째 교리를 다루기 전에, 저는 마리아에 대해 일반적으로 잠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즘 종교에서 마리아에 대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놀라실 겁니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권의 책이 꽤 최근에 나왔습니다. 하나는 Mary Through the Centuries이고 다른 하나는 In Search of Mary입니다.

하지만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책들은 타임지에 실렸어요. 타임지에서 리뷰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리아에 대한 책을 리뷰하는 종교 잡지나 가톨릭 잡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타임지에요. 후반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 타임지의 또 다른 표지 기사. 하녀 또는 페미니스트. 전 세계적으로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건 어때요?

그녀가 실제로 무엇을 대표하는지에 대한 거룩한 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긴 기사가 있습니다. 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상징이 있습니다.

제 말은, 메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대중 문화에서도요. 몇 년 전에 에티오피아 순례자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라고 쓰여있었지.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작은 반이 있지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큰 돌을 이고 세상의 짐을 덜어주는 여자가 있습니다.

순례자가 마리아에게 기도하며 춤을 춥니다. 하지만 한 문단만 읽어 보겠습니다. 산을 움직이는 믿음.

Aksum의 낯선 사람을 위한 크리스마스 경건 수업. 하지만 여기서 한 단락만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산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시바 여왕의 고대 거주지이자 언약궐의 성소로 알려진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심장부인 악숨에서 크리스마스 때 마리아에 대한 그러한 헌신은 흔한 일입니다. 4세기부터 이곳에서 행해져 온 단순한 경건 의식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에티오피아를 지배했던 공산주의 이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냉소주의가 아닙니다. 내전, 기근, 빈곤, 에이즈와 같은 최근의 재앙도 아닙니다. 율리우스력에 따르면 1년에 한 번 성모 축일이 있습니다

.

순례자들은 수만 명씩 모여 그들의 신앙에서 가장 거룩한 교회인 시온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 모입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의 노래는 에티오피아의 기독교인들이 구세주의 어머니를 예수보다 더 높은 존경으로 여긴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든 에티오피아 정교회든 교회에서 마리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를 예수보다 더 높은 존경으로 여기는 지경에 이르면, 당신은 신학적으로 어디에 있는 걸까요? 교리적으로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성경적으로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마리아에 관해서는 미묘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제 결론은 로마 가톨릭교도들이 마리아를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마리아의 승천을 믿지 않는다. 나는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읽지 않는다. 나는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한다.

저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마리아를 너무 과대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그들이 그녀를 유대교적 맥락에서 떼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교적 맥락에서 결혼과 아이와 가족을 갖는 것이 특권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어떤 의미에서 영지주의적 인물로 만들었고, 그 훌륭하고 강인한 유대 문화에서 살면서 주님을 낳고 다른 아이를 낳고 요셉을 사랑하는 인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마리아를 너무 과대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다른 측면은 개신교도들이 마리아를 너무 적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좋은 예는, 당신이 교회에서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언제였는가입니다. 만약 당신이 개신교도라면, 당신의 배경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에 대한 좋은 설교를 마지막으로 들은 건 언제였나요? 신약성경에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을 통해 마리아에 대한 많은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들이 마리아에 대해 말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개신교도들이 마리아에 대한 일종의 가톨릭적 숭배에 빠질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 본문에 충실하고 마리아가 본문에 나올 때 마리아에 대해 설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중 일부는 마리아에 대한 좋은 설교를 들었나요? 아니면 꽤 오래 되었나요? 아니면 마리아에 대한 성경 공부를 했나요? 아니면 꽤 오래 되었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도전과제가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녀를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아요, 교리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리 3번은 19세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황의 무오성 교리입니다. 좋아요, 교황의 무오성 교리입니다.

이제, 개신교도들도 이것을 약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 조심하고 싶습니다. 교황은 *ex cathedra* 문제에 대해 말할 때 무오합니다.

교황이 *ex cathedra*, 즉 문자 그대로 그의 의자에서 말하는 문제에 대해 말할 때, 성당이란 무엇인가? 성당으로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 성당은 주교의 의자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그런 이유로 성당이라고 부른다.

교황이 어떤 교리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자리에서 *ex cathedra*로 말할 때, 교황은 무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황의 무오성 교리입니다. 개신교도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개신교도들은 교황이 뭔가 말할 때마다 그가 무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무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교황좌에서 말할 때만요. 그러니 기술적으로, 이 교리가 1870년에 선포된 이후로,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황의 무오성 교리는 기술적으로, 그 이후로 선포된 교리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모 승천 교리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황이 말할 때마다 그는 교황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교리 자체가 논쟁되었습니다. 교리가 논쟁된 신학적 관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논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신학적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성령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교회의 목자가 올바른 교리를 가르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위대한 목자인 교황이 일종의 신성한 메시지를 전할 책임을 맡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좋아요.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목회적인 이유인데, 복음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불순종하고, 대죄 속에 살면, 수업 첫날에 대죄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세요. 복음에 불순종하고, 대죄 속에 살면, 영원한 형벌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 양떼의 위대한 목자, 양떼의 위대한 목자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싶어하는 게 섭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올바르게 제시하여 사람들이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죄에 빠지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의 목자가 성령을 증거하고 올바른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거기에 있다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당신은 대죄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갈 사람들을 목회적으로 걱정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 교황의 무오설, 이 경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주장합니다 .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텍스트만 언급할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적어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을 시간을 가질 것이지만, 여러분은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걸 적어두고 본문을 읽으세요. 아마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을 테지만, 마태복음 16장은 13절에서 시작해서 20절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노트북에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노트북에서 아주 빨리 본문을 찾아볼 수 있고, 혹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확실히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회 사이의 해석 차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카이사레아 빌립보 지방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도다. 육과 피가 이것을 네게 계시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셨느니라. 그리고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나라 열쇠를 네게 주리라. 네가 땅에서 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격히 명령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문제는 18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좋아요, 18절, 로마 가톨릭 교회와
관련해서, 이 구절은 교황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베드로이고,
당신은 첫 번째 교황이고, 그 반석 위에, 당신 위에, 베드로, 그 위에,
당신은 반석으로서, 나는 내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었고, 지금은 프란치스코 교황이고,
모든 교황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읽고 교황청에 대한 성경적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개신교도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18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가 세워진 반석은
베드로가 방금 한 고백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서 있는 반석은 고백 위에 있고, 교회가 세워진 반석은 신앙 고백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당신이 베드로라고 말하지만,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할 때, 그는 사람이나 교황청을 말하는 게 아니예요. 그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가톨릭과 개신교는 이 성경 본문에 눈맞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성경 본문을 똑같이 해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이 글을 읽을 때 교황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좋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황이 교황좌에서 말할 때, 교황이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예를 들어 마리아 승천을 선언할 때 교황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종의 론 레인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마리아의 승천을 믿으므로, 그는 나와서 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할 것입니다. 모든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지금부터 마리아의 승천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교황이 교황좌에서 말할 때 하는 일은 교회의 일반적인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가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 승천 교리를 두려워하는 가톨릭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것이 우리를 개신교와 더욱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교황은 일반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신의 전통에 따라 가르치지 않는 *ex cathedra*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볼 수 없습니다. 글썄요, 교황은 외로운 레인저입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을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 그가 교황좌에서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건 공평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말하고 싶은 또 다른 것은 개신교가 교황의 무오성이라는 교리에 반대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성경의 무오성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오하다는 것이지, 사람이 무오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성경의 무오성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알겠어요, 세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로, 그리고 다시 19세기로 넘어갔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가톨릭교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 세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를 생각하고 어떻게 믿거나 믿지 않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거나 질문이 있습니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좋아요, 강의 전체는 19세기 로마 가톨릭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떠나기 전에, 말해야 할 것이 있나요? 아니면 19세기 로마 가톨릭에 대한 설명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 로마 가톨릭교, 등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개신교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 좋아요, 5초만 주세요. 다음 강의를 여기로 올리겠습니다. 5초간 휴식을 취하세요.

내가 없는 동안 이 시간 동안 시간을 잘, 현명하게 사용했나요? 금요일과 월요일 이 시간 동안 공부했나요? 다들 공부하고 논문 썼나요? 좋아요, 공부? 네, 좋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좋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걸 바꿔야겠어. 그럼 여기로 여행을 떠나자. 좋아, 읍스, 읍스, 아니, 가자. 내가 뭐지? 가자.

좋아요, 여행을 계속해 봅시다. 이제 19세기에서 시작해 20세기로 넘어갈 겁니다. 좋아요, 이게 당신이 얻은 것입니다. 이게 칼 바르트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할 일은 전기적 스케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바르트의 신학과 그가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강의에서 전기를 제공하는 사람이 4~5명 정도 있다고 말했던 걸 기억하세요.

그들이 매우 중요하고 신학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학 전통을 형성한 사람들이어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과 함께 그것을 했고, 쉘라이어마허와 함께 그것을 했고, 저는 칼 바르트와도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바르트이고 바르트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단단한 T로 바르트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의 날짜가 있어요, 1886년에서 1968년. 그러니까 먼저, 저는 그의 배경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의 신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우선, 그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독일인이 아니지만, 바르트는 스위스 베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이 그가 1886년에 태어난 곳입니다. 이것은 그가 스위스 시민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스위스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 사실은 그의 삶에서 나중에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아마도 나중에 그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스위스에서 태어났고 스위스 시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매우 중요해집니다.

좋아요, 이제, 바르트가 하는 일은 다양한 독일 대학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칼빈과 함께 이것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르트와 함께 이것을 말합니다.

그는 다양한 독일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가서는 교수와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특정 교수와 특정 내용을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게 그 세상에서 당신이 했던 방식이야. 지금은 그렇지 않아. 다음 월요일은 GE의 날이야.

캠퍼스에 사람들이 와서 고든과 고든의 모든 측면, 그리고 고든에 대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보죠. 하지만 그 세계에서는 교수와 함께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가요. 그리고 그는 대학에서 대학으로 옮겨 다녔어요.

대학 교육을 마친 후, 그는 목사가 되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목회 사역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제네바에서 먼저 목회 사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네바에서 3년 동안 목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마을로 갔고, 저는 제 친구 중 한 명이 스위스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Safenwil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 그래서 이 작은 마을의 발음을 알고 싶다면, Safenwil입니다 .

사펜빌 에서 목사였습니다 . 그리고 그는 1911년부터 1921년까지 그곳에서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0년 동안 사펜빌 에서 목사였습니다 .

좋아요, 그리고 그가 아는 한, 그는 평생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아마 이게 내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1911년부터 1921년까지의 세월을 주목하세요.

Safenwil 에서 벗어나 , 1914년과 1918년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차 세계 대전입니다. 이것은 20세기가 시작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쟁을 겪는 것은 그의 신학적 훈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의 신학적 훈련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고전적 개신교 자유주의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받은 모든 대학 훈련은 우리가 몇 강의 전에 이야기했던 고전적 개신교 자유주의에 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와 같은 사람들의 신학의 종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전적인 개신교 자유주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에 눈가리개를 씌운 듯했습니다. 죄를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듯했습니다. 악을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좋은 도덕적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의 모든 훈련, 그가 훈련받은 모든 종류의 자유주의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가장 끔찍한 사건 때문에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가 발견한 것은 그가 훈련받은 방식을 조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학적 훈련을 그가 살았던 세상의 현실과 조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19 년에, 그는 여전히 목사라는 것을 주목하세요.

하지만 1919년에 그는 로마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사로서 로마서를 가르치고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1919년에 그는 로마서에 대한 주석을 썼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대한 그 주석을 쓰고 로마서에서 설교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훈련받은 신학에 의문을 제기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이

실제로 성경적 신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적 기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로마서에 대한 1919년 주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칼빈이 쓴 최초의 주석 중 하나는 무엇이였을까요? 그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주석이었습니다. 웨슬리가 이상하게 마음이 따듯해지는 것을 느꼈을 때, 그는 무엇을 듣고 있었을까요? 그는 로마서에 대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로마서에 쓴 서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르트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로마서를 진지하게 읽는 것에는, 제 생각에는,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서 똑같이 하세요.

그러니 로마서를 읽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1919년에 그는 로마서에 주석을 썼습니다. 이제 그는 주석이 그의 목사 친구 몇 명과 공유될 것이고, 그게 끝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 마을에 있는 목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리는 이 주석에 대해 이야기하고 로마서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끝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일어난 일은 그것이 독일어권 세계에서 폭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대한 그의 주석은 독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독일어권 세계에서 주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책에 정말로 매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이 책은 우리의 죄성과 신에 대한 반항 때문에 신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이것에 대한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4년간의 끔찍하고 끔찍하고 끔찍한 전쟁을 겪으면서 겪은 것보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까? 순수한 신과 의로운 신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 단절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석은 정말 폭발적이 되었습니다.

이 주석이 당시 신학계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강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번역되기 시작하고, 이런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좋아요.

192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삶과 전기, 1921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또 다른 사실은 칼 바르트가 목회 사역을 그만두고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그곳에서 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대학에서 교사가 되었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가 독일 본에 있는 대학에서 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국경을 넘어 본으로 갔습니다. 그는 1930년에 거기에 갔습니다. 그는 1930년에 독일 본으로 가서 그곳에서 신학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그는 아마도 독일 본에서 평생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좋아요.

하지만 그는 히틀러가 집권한 1933년과 나치가 집권한 1933년에 일어난 사건을 예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칼 바르트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고 그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회퍼에 도달하고 본회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디트리히 본회퍼에 대한 이틀 분량의 영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본회퍼는 칼 바르트의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이틀 분량의 영상을 보여줄 텐데, 저는 그 영상이 본회퍼와 바르트를 그런 맥락, 그런 종류의 문화적-정치적 맥락에 두는 것 같아서 좋아요. 하지만 히틀러는 1933년 독일에서 집권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히틀러가 집권한 후 바르트에게 영향을 미칠 네 가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집권합니다. 교회 투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 요점은 매우 중요한데, 그가 스위스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독일 시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위스 시민으로서, 심지어 나치 치하에서도, 스위스 시민으로서, 그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는 독일인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시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가진 자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니, 그걸 알아차리세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중요할 거야. 알았어. 알았어.

두 번째, 바르트에게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사항입니다. 나치가 집권했을 때 바르트의 정치 이론은 거의 두 왕국 이론이었습니다. 그의 정치 이론은 모든 정부 권력에 대해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든, 신이 로마의 황제에게 한 것처럼, 신이 신의 섭리로 이 권력을 세웠지만, 나는 이것에 대해 중립을 지킬 것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정치의 문제입니다.

저는 종교와 신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죠. 그게 히틀러와 나치에 대한 그의 원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하지만 나중에 히틀러가 권력을 키우고 나치가 권력을 키우면서 그는 더 이상 그 입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제가 더 이상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그 이유의 일부는 디트리히 본회퍼와 그의 학생 중 한 명이 나중에 갖게 될 이유와 같고, 그것은 나치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력 있는 자리에 두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었고, 히틀러는 실제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지도자가 아니거나 지도자가 아니며, 나치당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력에 두지 않으셨고, 권력과 권위를 남용하여 권력을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에 대한 두 번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원래 정치 이론은 중립이었지만, 나치가 집권하고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그는 더 이상 중립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르트에 대해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세 번째 사항은 그가 1934년에 법령을 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1934년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바르만 선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업에 가져와서 몇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금요일에 생각하면 말입니다.

이것을 바만 선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고백 교회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선언이었고, 간단히 말해서 고백 교회는 지하 교회였습니다. 독일의 루터교회는 나치화되었고 나치에 의해 인수되었습니다.

루터교 목사라면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교는 편입되었습니다. 지하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스스로를 고백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그들의 신학교에서 교사로서 그 고백 교회에 크게 속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기를 거부한 목사 집단인 고백 교회는 그들만의 신앙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바만 선언은 일종의 모래 위의 선과 같습니다.

당신은 누구 편에 설 것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 순수한 복음의 사역 편에 설 것인가요? 아니면 히틀러 편에 설 것인가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요? 그래서 1934년 바만 선언은 매우 중요해졌고, 그는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요 저자입니다. 좋아요, 그럼 세 번째입니다. 좋아요, 네 번째입니다.

디트리히 칼 바르트는 히틀러에게 충성서약을 거부하는 삶의 지점에 도달합니다. 히틀러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충성서약을 하라고 요구했고, 여기에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대학의 교수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본에서 가르치고 있었고, 히틀러에게 충성서약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칼 바르트는 내가 이걸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가 독일인이었다면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 갇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구한 유일한 것은 그가 스위스 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그는 나라 밖으로 다시 보내졌습니다. 그것이 그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그는 독일이 아니라 스위스에서 태어났습니다.

Dietrich Bonhoeffer는 목숨을 잃었고, Bonhoeffer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겠지만, Karl Barth의 목숨은 보존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나치 독일 하에서 그 네 가지가 있었고,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질문은, 그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무엇을 했는가? 그가 떠나 집으로 돌아간 후에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좋아요.

앗, 미안합니다. 그가 집에 가면 바젤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봅시다, 여기 날짜가 있습니다.

그게, 잠깐, 34, 35세쯤 되었을 텐데, 그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는 1968년에 죽을 때까지 바젤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했어요. 그런데, 바젤이 아니라 바질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르트 예요, 바르트가 아니에요.

바젤이지 바질이 아니에요. 이 지역의 정확한 발음을 알고 싶으시다면요. 하지만 그는 집에 가서 바젤 대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좋아요, 그가 바젤 대학교에서 가르치러 가면 오늘날 우리가 대중 신학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는 대중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국제 대중 신학자, 신학자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국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좋은 예가 표지에 있습니다.

타임 매거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종교 저널은 아니지만 타임 매거진은 그를 표지에 실었고 신학자 칼 바르트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들의 내부 스토리 전체가 칼 바르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중이 그를 인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신학자로 인정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제, 타임지의 사진을 주목하세요. 칼 바르트가 있고 그의 뒤에 주목이 있습니다. 그의 뒤에 무엇이 보이나요?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이 보입니다. 자유주의 개신교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덤을 닫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르트 뒤에서 보이는 것은, 타임지가 표지에 무엇을 넣을지에 대한 측면에서 매우 독창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표지에 빈 무덤을 넣은 것은 매우 독창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르트가 알려진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물론, 그가 쓰고, 쓰고,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932년에 그는 독일에서 이것을 시작했지만, 스위스로 돌아온 후에 그는 정말로 그것에 안주했습니다.

그는 교회 교의학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회 교의학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원래 이 책의 제목을 기독교 교의학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했습니다. 아니, 나는 이 교의학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교의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 교리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그가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그는 훌륭한 개신교도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신학 접근 방식은 무엇일까요? 개신교의 신학 접근 방식은 Depositum Fide인가요? Depositum Fide를 기억하시나요? 수업 둘째 날의 Depositum Fide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depositum fide가 뭐예요?

생각하시나요? Depositum Fide? 기억하시겠지만 그것은 로마 가톨릭의 보물 상자이고, 교리를 보물고에 넣고, 교리는 Depositum Fide를 가진 보물 상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개신교 방식은 모든 세대의 신학을 재해석하고, 모든 세대의 신학을 다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신교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루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칼빈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술라이어마허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술라이어마허가 내린 결론에 반드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는 개신교 신학을 다시 이해하고 싶어했습니다.

글쎄요, 칼 바르트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르트에게 주어진 칭호 중 하나는 사람들이 그를 두 번째 어거스틴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르트에게는 나쁘지 않은 칭호인데, 그는 4세기에 어거스틴이 한 것과 비슷한 작품을 많이 썼고, 바르트가 20세기에 한 것과 비슷한 작품을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교회의 교의학에서 기독교 신앙을 다시 이해하는 데 온 시간을 보냅니다. 그가 죽은 날, 1968년, 그는 여전히 교회 교학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말론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거기에 있었지만 여전히 교회 교학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가 커피를 마시러 나오지 않아서 그를 보러 들어왔을 때, 그는 항상, 그런데, 그의 벽과 서재에 두 장의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는 존 칼빈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모차르트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모차르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아침에 그에게 커피를 사러 들어갔을 때, 그녀는 모차르트를 꺼곤 했는데, 그가 모차르트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실 모차르트 학자였습니다. 그는 모차르트를 잘 알고 모차르트의 작품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녀가 들어왔고 그는 그날 밤 죽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고, 여전히 손으로 글을 썼고, 물론 여전히 교회 교리를 썼고, 그리고 그는 여전히 글을 쓰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교리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건 꽤 큰 일입니다.

그냥 암시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가져올 수도 있지만, 박사 과정에서 우리는 바르트의 화해 교리를 수업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화해 교리는 두 권의 교의학 책입니다.

각 권은 약 90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교리 하나는 약 1,800페이지 정도입니다. 교리 하나에 대한 글이 정말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교리학이 위대한 고전이 되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르트에게 일어난 일은 그가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의 신학에 도달할 때, 우리는 이것을 볼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가 한 일은 개신교 자유주의의 흐름을 물리친 것입니다.

개신교 자유주의는 칼 바르트가 없었다면 20세기에 훨씬 더 확고한 입지를 굳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칼 바르트는 개신교 자유주의에 맞서고, 개신교 자유주의가 기독교 신학의 가장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개신교 자유주의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은 20세기와 21세기 개신교 신학을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럼, 금요일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강의는 로저 그린 박사의 교회사, 종교 개혁에서 현재까지의 강의입니다. 이 세션은 19, 19세기와 20세기 개신교의 로마 가톨릭교, 칼 바르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